

포스텍의 '대치동 키즈' 배제 입시 성공했으면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쓰러진 패배를 맛보았다. 교육 당국만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점수만 보고 학생을 뽑았다가 이들의 무기력함에 질린 대학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재빨리 대응하는 사교육에 연전 연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텍이 '대치동 키즈를 배제' 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인원 370명 중 60%는 면접 반영 비율을 현행 33%에서 50%로 높여 사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배제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1인당 30분인 면접 시간을 무려 1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일단 60%로 시작하지만 곧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텍 김성근 총장은 "성적 위주 학생들을 줄 세우는 지금의 입시 제도는 문제 풀이 숙련공만 키운다"며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으로 가공되지 않은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이 선행학습 등 사교육으로 성장한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 입학 후 급격히 학업에 흥미를 잃으면서 3학년쯤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역전당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포스텍은 자기 주도로 진로를 탐색해보라고 노벨상 시상식, 미국 CES 박람회 참석 등에 1인당 4년 동안 1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런 이벤트 참석은 물론 사소한 학교 생활까지 부모와 상의하려는 경향이 강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대학 얘기다.

"내년부터 10시간 집중 면접으로 사교육 안 받은 인재 뽑아보겠다" 사교육 쪽에선 "불가능할 것" 꼭 성과 내고 노하우 전파해야

이 같은 포스텍의 시도에 대해 사교육 관계자에게 성공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는 "포스텍 의도는 좋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포스텍 같 정도면 사교육 안 받은 애들이 없을 것이고 그 면접에 대비하는 사교육이 나올 텐데 어떻게 고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포스텍 관계자도 "우리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입 제도로는 원석 같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기 어려우니 지원자를 얹어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포스텍은 인근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면접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공정성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사교육 껍질을 벗겨내고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을 가려내느냐가 핵심 일 것이다. 참고할 만한 얘기가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선행학습이 만든 '무늬만 영재'를 뽑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에게 질문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했으면 뽑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교 과정인 영재학교 입시에 관한 얘기지만 대학 입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서울대 의대 입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의대는 일정 수준의 수험생은 더 이상 점수를 보지 않고 면접으로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 면접을 도입한 후 수능 만점자를 탈락시킨 전례가 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장시간 면접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가 사교육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텍의 시도 자체가 반갑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포스텍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 다른 대학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풍토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김준의 맛과 삶 [216]

울릉도 오징어 누런창

3년을 기다렸다. 처음엔 제철을 모르고 갔다가 찬 바람이 나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일 년을 기다렸다. 일 년 후, 찬 바람이 날 때 다시 갔지만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았다. 다시 일 년 후, 드디어 누런창을 만났다. 울릉도에 며칠 머무는 덕에, 슬로푸드 회원들을 만난 덕에 귀한 누런창 찌개와 누런창 찜장을 맛볼 수 있었다. 일부 식당에 누런창 찜장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재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구경할 수 없다. 울릉도 주변에서 오징어가 잡혀야 비로소 가정이나 식당에서 누런창을 준비할 수 있다. 누런창은 오징어 내장 중에서 간을 말한다. 간은 내장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오징어가 20센티미터라

면 간은 10센티미터라고 한다. 그러니 식량이 귀한 시절 허투루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찬 바람이 나면 누런창을 한 독 채우고 소금을 올려 한 달 정도 숙성시킨다. 누런창은 단백질 덩어리다. 고기가 귀한 울릉도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이었다. 누런창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울릉도 주변에서 당일 잡은 오징어만 갈무리할 수 있다. 식량이 귀했던 시절에 옥수수나 홍감자에 누런창 찌개는 섬 주민을 지켜주던 음식이었다. 육지와 뱃길도 쉽지 않았고, 고기는 비싸기까지 했으니 섬 안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오징어는 머리, 몸통, 다리 부분은 건조해 판매하고, 내장은 흰 부분과 누



런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했다. 울릉도에서 쉽게 만나는 오징어내장탕이 흰 부분인 생식소를 이용한 음식이다. 노란색 간은 염장했다가 된장, 마늘, 매운 고추를 넣고 볶았다. 이것이 누런창 찜장이다. 그대로 밥상에 올리기도 하지만, 여기에 시래기를 넣고 자작하게 끓이면 누런창 찌개가 된다. 오징어가 귀해지면서 누런창 찌개가 울릉도 밥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울릉도는 누런창을 슬로푸드국제연맹이 추진하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과 음식을 보존하는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할 계획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사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다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보성 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의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

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의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후 무할 일이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운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비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 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감건희 실리자고 불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다.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개정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국방부가 원천 차단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방부가 "감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한다. 대북 전단으로 어떻게 감건희 이슈를 덮나. 민주당 내에는 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미리 탄핵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어도 거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김 장관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 9명 중 6명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현재 기각까지 167일이 걸렸는데, 지금 김 장관이 탄핵 소추되면 그 기간 이상 직무 정지가 길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는 공백이 생긴다.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여파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미치고 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때에 국방 장관을 탄핵해서 엮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에 쏠리는 관심을 이렇게 돌리려는 것인가. 정쟁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값 급등 촉발시킨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 자화자찬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이뤘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유도했으며,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했다"고 썼다. 불과 두세 달 전까지 계속된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노심초사 지켜본 국민 중 이런 자화자찬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급등세로 돌아섰는데도 국토부는 "지역적, 일시적 잔등락"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서울 삼당지 아파트 호가가 하루 1억원씩 급등하는 지경에 이르지, 정부는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래도 불길히 잡히지 않자 은행 압박에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비상 대책까지 동원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무능 탓이다. 집값 하락세가 더 이어지도록 부동산·금융 정책을 잘 조율했어야 하는데, 내내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270만채 공급'을 약속했지만, 주택 착공 실적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등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지만,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계속 미루며, 신규 택지 공급 중단 사태를 방치한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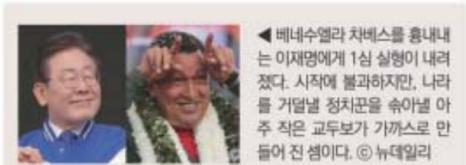
금융 당국은 부동산 경착륙만 우려한 나머지 저금리 주택 대출을 연 30조~40조원씩 지원하며 주택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공급 부족 우려에 급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재발했다.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 내서 투자)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3분기 중에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3조원이 더 늘었다. '똥뽕한 한 채'의 가격 폭등 여파로 상위 10%와 하위 10% 간 집값 격차가 40배 이상으로 벌어지며 자산 양극화도 심화됐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서울 집값 급등세를 낳는 바람에 미국의 가파른 급리 인하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추가 급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 과도한 빚과 고금리에 신음하는 국민 고통을 덜어줄 기회를 정부의 무능이 막은 꼴이다. 이런 상황에 책임이 가장 큰 국토부가 자화자찬 발표를 했더니 놀라울 따름이다.

2월에 넘겨받아 9개월만에 종결

정치인 재판, 한성진 판사처럼 제발 신속하게 하라

16개월 질질 끌던 전임 강규태 판사, 들연 사표 유사 재판 허경영은 벌써 3심 마쳐 형 확정에 4년2개월(윤미향) 3년4개월(최강욱) 걸려 황운하는 1심에만 3년10개월, 도대체 언제 끝날까? 2심까지 4년 조국, 대법원에서 9개월째 감감 무소식



못한 채 사는 시민들, 서럽고 아니꼽고 복장 뒤틀려 어디 살겠나?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 조국 등은 또 어떤가? 그들은 형사 소추(訴追)를 받으면서도 세비(歲費)를 꼬박꼬박 타 쓰며 의원직을 즐겼거나, 즐기고 있다.

④ 저들이 그토록 특혜를 누렸던 장본은 모두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사상적 편향 탓이었다. 그때부터 사법부 요소요소엔 **법조운동권**들이 내려쬐었다.

이들은 울산 시장선거에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를 몰아 넣지 않았다. 우파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이 나자마자 구속했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50억을 챙긴 의혹을 받는 **대법관(권순일)**을 그대로 놔뒀다.

이재명에게서 향내가 나나?

⑤ 희한한 건 이뿐 아니다. 어찌자고 국민 절반이 **이재명**의 뒤통이를 알 터인데도, 그와 그의 패거리에게 표를 던졌다.

한동훈은 그것을 **《국민 눈높이》**라 치켜세웠다.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그럼 **이재명**에게선 한결 향내가 나던가?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 (골랑 이재명)?

⑥ 운동권은 **《정의와 진보》**를 위해 투쟁한다고 자임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재명**과 그의 광(狂) 팬의 어느 구석이 그렇게 **《정의롭고》** **《진보적》**이던가?

이재명 유죄 판결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거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는가?"를 운동권은 **《처음부터 다시 자문해야》** 할 때다.

이재명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운동권 안엔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 싸운 결과가 《골랑 이재명》이냐?”**란 자조(自嘲)가 그대로 있었다. 일말의 자존심이 조금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오히려 **“비명 게가 움직여?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최민희) 하면서 서슬이 시퍼렇다. 그가 뭇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진보적 정치범 양심수》**라서? ㅎㅎㅎ

우파도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 한다. 자유인들은 일어서 가자! 레지스탕스(저항) 운동은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영송 칼럼: (신3김사태) 열리나
 (이재명 일국체제) 끝나간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웃고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1월 16일 게재 되었습니다.